

도약의 달  
선교 주간

꿈이 있는 교회  
섬김이 있는 교회  
어제보다 오늘 더 행복한 교회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하여 본을 보였노라.  
요한복음 13:14-15

내 말대로 해봐  
다 말해줬잖아  
행동으로 옮기지만  
하면 돼!  
내 말대로  
안 돼여..



일직선의 길도, 구부러진 길도  
예수님 말씀이면... 갑니다

# “믿음의 뿌리를 굳게 내리는 해”

“성령님의 역사가 감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열왕기하 2:9)



섬김의 교회  
church of servants

# 예 배 WORSHIP

July 24, 12:30pm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최선의 주일예배

	환영과 축복 사역과 소식 (교회 / 교우)
하나님 앞으로	찬양과 경배 / 찬양팀과 함께 예배기도 / 최선운 집사 주님 가르치신 기도
말씀과 결단	성경말씀 출애굽기 13: 17-22 <b>하나님의 인도를 받자</b> 말씀선포 / 김성배 목사 결단의찬양 /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결단의 기도)
헌신과 열매 (봉헌 / 나눔)	봉 헌 / 김훈태 집사, 유동숙 집사 * 봉헌찬송 / 213장 - 나의 생명 드리니 - 4절 (통일찬송가 348장)
삶과 세상으로	* 찬 양 / 가서 제자 삼으라 * 축 도 / 김성배 목사

\* 표는 모두 일어 셉니다

예배시간 10분전 휴대전화 점검과 묵상으로 준비합니다.  
진정한 예배는 교회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시작 됩니다.

## 금 요 찬 양 예 배

찬양과 기도

말씀 : 김성배 목사 / 데살로니가전서 3:1-10

환난 중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 “하나님의 나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환영과 교제의 식탁** 섬김의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배후 주일 만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에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사역 / 행사

**7월 “도약의 달”**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에게 허락하시는 새 힘으로 날개 치며 올라가는 독수리와 같은 삶을 누리도록 합니다.

- 2022년은 믿음의 뿌리를 굳게 내리는 해입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열왕기하 2:9)  
건강한 성장, 풍성한 열매, 더 많은 나눔을 추구하는 교회
- 여덟번째 해 사역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하게 성장하고, 열매를 맺어 하나님의 복을 나누는 교회가 됩시다.
- 하반기 사역 치유와 회복과 나눔의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힘 씁시다.
- 선교 주간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수고하는 선교사를 위해 기도합니다.
- 중고등부 여름수련회(8월 5-7일/ 금-주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여름을 건강하고 유용하게 활용하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 성경공부와 기도 모임(주일 오전11시-11시 45분)  
말씀과 기도는 영혼의 생명줄입니다. 모두 참여합시다.
- 토요 새벽기도 (오전 7시) 함께 전심으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 믿음의 뿌리내리기
  - 1) 기도운동 성령충만과 복음의 능력을 위해
  - 2) 예배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자로 예배하는 결단

▶ 교우 동정 - 한국 방문: 구 민, 은강 집사 가정 / 박강현 Caleb

▶ 7월의 사역 - 선교주간(24-30) 선교주일(31) 중고등부 수련회(8/5-7)

♥7월 생일축하♥ 이광호(14) 오정은(14) 구은강(28)

### 기도제목

1. COVID-19의 휴유증으로 어려움을 겪는 교우를 위해
2. 가정의 안전이 위협받은 교우의 평안과 위로를 위해
3. 이사하는 가정을 위해
4. 대학진학을 준비하는 자녀와 각 자녀의 유익한 방학을 위해
5. Youth 사역(Joint ministry)의 성장과 2세 사역자 청빙을 위해

### 예배 섬김이

주일예배기도	7/17	7/24	7/31	8/7
	김성배목사	최선운집사	최내권집사	김훈태집사
주일헌금위원	7/17	7/24	7/31	8/7
	유동숙집사/김훈태집사		오정은집사/유덕하집사	
주일안내위원	7월			8월
	최내권집사			구 민집사

## 말씀노트

### 말씀노트 Sermon Note

〈지난주일 말씀요약〉 “네가 믿느냐?” / 요한복음 11:30-46

마르다는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으나, 예수님의 능력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그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지는 못했다. 경험과 이성을 지배를 받았다. 따라서,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바로 무덤의 입구의 돌을 옮겨놓으려 하지 않았다. 이때 예수님은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그녀에게 말씀하셨다. 말과는 달리 믿지 못하는 마르다는 우리의 자화상이다. 믿음은 성도를 변화시킨다. 사람의 눈을 믿음의 눈으로 변화시킨다. 육신의 귀를 믿음의 귀로 다듬는다. 사람의 입술을 변화시켜 믿음의 입술을 갖게 한다. 믿음은 절대 추상적이지 않고, 실제적이다. 진정한 믿음은 사람의 이성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한다. 그럴 때 우리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

### 하나님의 인도를 받자 / 출애굽기 13:17-22

한 걸음씩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삶

특별한 믿음이나 순종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던가?

첫째, 하나님의 훈련 때문에, 오합지졸에서 하나님의 군대로 변했다.

둘째,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때문에, 핍박하던 적들이 홍해에서 멸망했다.

셋째,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를 받았다.

때로 기다림으로, 서행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야 한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자 / 출애굽기 13:17-22**

시각장애인 김 워스의 고백처럼 자신에게 한 발 앞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려주면 앞으로 갈 수 있다고 말한다. 마찬가지로 그는 하나님이 삶을 한 걸음을 떼어놓을 자리를 일러주신다는 진리를 깨닫게 되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뿐 아니라 오늘 우리도 한 걸음씩 삶 전체를 인도하신다.

출애굽기 13:17-22 말씀은 열흘이면 가나안에 도착할 여행의 과정을 설명한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과정이었다. 그런데 이 과정은 때로는 돌아가는 길, 쉬어 가는 길, 때로는 기다리는 길이었다.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이 많이 다르다는 진리를 깨닫는다. 하나님의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이사야 55:8-9).

제한된 인생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길을 온전히 맡기고, 그 인도를 따라야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중해 연안 단축 길고 교역로로 아닌, 광야로 이끄셨다. 지름길이 아닌 우회하는 길로, 좌우는 산이 앞은 홍해가 가로막은 곳이었다. 얼마 후 바로와 이집트 군사들이 이스라엘을 뒤를 추격해온다.

40년간 광야에서 생활했던 모세가 길을 몰라서 이 최악의 길로 들어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를 순종하여 도착한 곳이다. 사람의 눈에 최악으로 보이는 상황에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

첫째, 오합지졸이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군대로 준비될 훈련과 시간이 필요했다. 광야는 이스라엘은 군대로 준비되었다. 둘째, 바로의 군대를 심판 하심이였다. 셋째, 이스라엘과 함께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였다. 최악의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한다. 방황하는 길 같았으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길이었다.

하나님의 인도를 깨닫고,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는 쉽지 않다. 이스라엘이 특별한 믿음이 있어서, 특별히 순종하는 사람들이라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던가. 이스라엘을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 훈련을 통해 순종하게 만드셨다.

당신의 계획과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고 있나? 많은 경우 그렇지 않을 것이다. **훈련이 필요하다.** 분주한 삶에서도 하나님은 느린 길 혹은 우회로로 인도하시기도 한다. 어떻게 하겠는가? 조금 뒤처지 모습이 인생의 낙오자로 오인되는 시대에 **기다림과 서행으로 내가 준비한 길과 반대로 갈 용기가 있는가?** 사람의 경험과 기준을 초월한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로 결단할 때이다.

**말씀적용과 실천노트**

*Application Note*

## 삶과 신앙

### 모든 사람이 나보다 잘 사는 것처럼 보인다...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 잠언 14:30

나는 뒷마당 데크에 나와 앉아, 유리잔 속의 얼음들이 작은 소용돌이를 일으킬 때까지 줄무늬 빨대로 아이스티를 힘껏 젓고 있었다. 그러나 휘젓고 있는 것은 내 정오의 음료만이 아니었다. 내 감정들도 소용돌이를 치고 있었다.

그러니까, 나는 휴대폰으로 소셜 미디어 포스트들을 훑어보고 있었다. 손으로 화면을 넘길수록 내 마음은 더 깊이 가라앉았다.

나는 방금 한 아이의 잘못된 선택을 바로잡고, 남편과 긴장감 가득한 언쟁을 한 데다, 하필 그날 입은 꼭 끼는 청바지가 한때 너무 험령해서 지역 중고 상점에 기부하려던 바지였다는 사실 때문에 이미 우울한 상태였다.

“휴.”

한숨이 나왔다.

휴대폰의 화면들을 넘겨다보니, 이런 생각만 들었다.

‘와, 진짜 멋지다. 이 사람들은 모든 걸 가진 듯해.’

이렇게 하면 다음과 같은 장면이 펼쳐졌다.

휴대폰 화면을 넘긴다.

‘와, 정말 똑똑하고 공부 잘하는 아이들을 두었구나.’

화면을 가볍게 두드린다.

‘온화한 미소를 짓는 남편과 멋진 저녁식사를 하네. 정말 행복해 보인다.’

스크롤을 내린다.

‘오, 정말 멋져. 체육관에서 운동하는 사진이네. 운동에 엄청 많은 시간을 들이나 봐. 게다가 몸과 식욕도 도와주겠지. 나도 내일부터 다이어트를 시작해야겠다. 아니면 다음 주 월요일?’

오, 나 지금 뭐라는 거야? 난 절대 저렇게 되지 못할 거야.’ 바로 이거다.

소셜 미디어를 보다 보면 우리는 ‘보이는 것’에 완전히 무너질 수 있다. 언제나 모든 사람이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인다.

오늘 잠언의 핵심 구절은 이것을 잘 보여준다.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잠 14:30).

‘시기’란, 처음에 한 ‘정말 멋지다’라는 생각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격렬하고 열성적인 ‘질투’를 의미한다. 또한 ‘썩게 한다’는 단어는 ‘부패시킨다’라는 의미다. 이 구절에서는 어떤 사람의 생명력의 비유적인 죽음을 의미한다.





## 섬김의 교회는...

- ▶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 ▶ 하나님의 사랑에 빛진 교회의 사람으로, 섬김을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 ▶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향해 쉬지않고 성장합니다.
- ▶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행복한 교회와 가정, 개인의 생활을 소망합니다.
- ▶ 하나님의 나라를 모든 사역과 삶의 영역에서 세웁니다.

## 예배 및 모임 안내

주 일 예 배 / LORD'S DAY WORSHIP : SUNDAY 12:30 PM

주 일 학 교 / SUNDAY SCHOOL : SUNDAY 12:30 PM

주일성경공부 / SUNDAY BIBLE STUDIES : SUNDAY 11:00 AM

금요찬양예배 / FRIDAY SERVICES : FRIDAY 7:30 PM

새벽경건회 / EARLY MORNING DEVOTIONS : TUESDAY~FRIDAY 6:00 AM  
SATURDAY 7:00 AM

성 경 공 부 / BIBLE STUDIES : SUNDAY 2:30 PM  
WEDNESDAY 7:00 PM

일대일 제자 훈련 / DISCIPLESHIP CLASSES : WEDNESDAY 7:30 PM

## 교회위치 (Our Location)



섬기는 목회자 : 김성배 목사

847-691-7846 / [www.churchofservant.com](http://www.churchofservant.com)  
800 East Palatine Road, Palatine, Illinois 60074